

## 마쓰다이라 가문 저택 터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는 마쓰다이라 가문 선조의 본거지였던 옛 마쓰다이라 저택 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지카우지(1394년 사망 추정) 시대부터 15세기까지 마쓰다이라 종가는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마쓰다이라 가문은 서쪽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주변 평야를 제패했습니다. 이윽고 다로자에몬이라는 마쓰다이라의 분가가 이 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로자에몬 가문의 자손들은 1920년대에 도쿄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후 1931년, 이 부지에 도쇼구 신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지카우지 시대의 건물 모습은 명확하지 않으나 1600년대 이후의 문헌과 지도에는 북쪽의 가파른 산비탈과 삼면을 해자로 둘러싸인 성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에 둘러 판 것)의 동쪽은 1800년대에 매립되었지만, 서쪽과 남쪽에 면하는 L자형 부분 및 해자를 따라 있는 돌담과 흙다리는 남아있습니다. 서쪽 돌담의 일부는 해자 안으로 뻗어있는데 해자를 진격하려는 침략자를 직접 활로 쏘기 위한 방어시설입니다.

현재, 마쓰다이라 가문 저택 터는 국가지정사적 '마쓰다이라 가문 유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택 터에서 동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는 고게쓰인 절이 있으며, 주변에는 마쓰다이라 가문이 쌓은 중세의 성터가 2곳 있습니다.